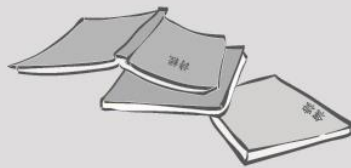


孟子

1차시

孟子集注序說

맹자집주서설



則見以爲迂遠而闕於事情 當是

以攻伐爲賢 而孟軻乃述唐虞三代之德 是

作孟子七篇 韓子曰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

孔子傳之孟軻 軻之死 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不精 語焉而不詳 又曰孔子

門弟子不能徧觀而盡識也 故學焉而皆得其性之所近 其後離散 分處諸侯之國 又

1차시

孟子集注序說

史記列傳曰 孟軻 騶人也 受業子思之門人 道既通 游事齊宣王

사기 열전왈 맹가 추인야 수업자사지문인 도기통 유사제선왕

宣王不能用 適梁 梁惠王不果所言 則見以爲迂遠而關於事情

선왕불능용 적량 양혜왕불과소언 즉견이위우원이활어사정

當是之時 秦用商鞅 楚魏用吳起 齊用孫子田忌 天下方務於合從連衡

당시지시 진용상양 초위용오기 제용손자전기 천하방무어합종연횡

以攻伐爲賢 而孟軻乃述唐虞三代之德 是以 所如者不合

이공벌위현 이맹가내술당우삼대지덕 시이 소여자불합

退而與萬章之徒 序詩書 述仲尼之意 作孟子七篇

퇴이여만장지도 서시서 술중니지의 작맹자칠편

[번역] 『史記(사기)』 「列傳(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孟軻(맹가)는 騶(추) 땅 사람으로, 子思(자사)의 문인에게서 공부하였다. 道(도)가 이미 통하자, 齊宣王(제선왕)에게 유세하여 섬겼으나 선왕은 그를 쓰지 않았고, 梁(양)나라에 갔으나 梁惠王(양혜왕)은 말한 바를 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실 사정과 멀고 성감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때에 秦(진)나라에서는 商鞅(상양)을 등용하고 楚(초)나라와 魏(위)나라에서는 吳起(오기)를 등용하고 齊(제)나라에서는 孫子(손자)와 田忌(전기)를 등용하여, 천하가 合縱(합종)과 連橫(연횡)에 힘써 공격하고 정벌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맹가는 唐(당)·虞(우)와 三代(삼대)의 덕을 말씀하셨으니,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뜻이 합치되지 못하였다. 물러나서는 萬章(만장)의 무리들과 더불어 『詩經(시경)』과 『書經(서경)』을 차례 짓고, 공자의 뜻을 서술하여 『맹자』 7편을 지으셨다."



史記列傳曰 孟軻 騶人也 受業子思之門人 道旣通 游
事齊宣王 宣王不能用 適梁 梁惠王不果所言 則見以
爲迂遠而闊於事情 當是之時 秦用商鞅 楚魏用吳起 齊
用孫子田忌 天下方務於合從連衡 以攻伐爲賢 而孟
軻乃述唐虞三代之德 是以 所如者不合 退而與萬章
之徒 序詩書 述仲尼之意 作孟子七篇

